

# 첫 투표 앞둔 18세 유권자들 '울상'

### 만 18세 생애 첫 투표 앞둔 시점

### "공부하라며 공약집도 못보게 해"

### 특정 후보 뽑으라고 강요 사례도

### "청소년도 주체적존재 인식 필요"

4·7 재보궐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행사할 올해 만 18세 유권자들 일부는 가족 등 주변 어른들의 과도한 간섭 등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해 4·15 총선부터 만 18세인 청소년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만 18세가 참여하는 두 번째 선거로, 올해 만 18세가 된 이들은 생애 첫 투표인 것이다.

6일 뉴시스가 취재한 만 18세 청소년들은 첫 투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어른들이 자신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부'였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모양은 "첫 투표를 해야 하니 기분이 좋아야 하지만, 가족들이 고3이 공부에만 전념하기도 부족한데 선거에 집중이 분산된다고 잔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칠 전부터 기사도 못 읽게

하고 선거와 관련된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게 한다"며 "투표를 하고 싶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학원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모양도 "한 선생님께서는 생애 첫 투표를 축하한다고 말해주셨는데 가족들은 고3이 공부할 해야지 무슨 투표냐며 핀잔을 주고 집으로 온 정책 공약집도 못 보게 했다"고 전했다.

청소년 유권자들을 향한 어른들의 투표 통제는 '금지'가 아닌 '강요'의 모습으로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식의 압력을 넣는 방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며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게 됐다는 A양은 할머니에게 투표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섭을 받았다고 한다.

A양은 "할머니가 자주 붙잡고 이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후보를 뽑으면 공산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 소신대로 투표하는 건데 내 얼굴 볼 때마다 그러시니까 나도 내대로 화난다.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화낼 수는 없는 입장이라 더 짜증난다"고 밝혔다.

성양은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약간 강요하듯 얘기해서 부담스럽고 불편했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시에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차모군은 "크게 압박을 받은 적은 없지만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해서 특정 당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당황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청소년 운동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

연대 최준호 상임대표는 "사회가 중고등학생들을 개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시민으로 보지 않고 대학 하나만 바라보며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며 "청소년을 객체적인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 연구위원은 "일부 기성세대의 경우 만 18세 유권자층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층은 미디어나 가정,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정치사회화를 경험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이 돼서도 일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광주 남부소방, 혈액부족 극복 '사랑의 헌혈 운동'

광주 남부소방서는 31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혈액수급 위기에 보탬이 되고자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혈액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체온측정,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대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헌혈을 진행했다.

정신교 남부소방서장은 "매년 혈액수급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헌혈이 더욱 감소하는 추세로남부소방서 직원은 계속해서 헌혈에 동참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윤희기자

## 무안소방, 미래소방관체험교실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한다.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은 소방직업 관련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폭넓은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 하였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직업 이해 및 비전소개, 소방공무원 채용 과목, 체력검정 체험, 화재,구조,구급 출동 체험, 각종 소방안전 교육을 배울 수 있고 현장 소방관들의 교육, 훈련을 통해 소방관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무안=이기성기자

## 완도해경, 4대비위예방위해 '청렴고충소통방' 운영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갑질 등 고비난성 4대비위(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청렴고충소통방"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완도서는 최근 4년간 고비난성 4대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기관으로서 '21년도 4대비위 ZERO'화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자체 QR코드 제작과 신고통로 확보로 내부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 정보 기입을 요구하지 않는 100% 익명신고방법을 통해 자신과 동료의 고충이나 선형·수법사례를 가감없이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고충소통방의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스티커는 완도해양경찰서 각 부서(경찰서, 함정, 파출소)의 사무실 또는 청사 곳곳에 게시될 예정이다.

완도=이민혁기자

## 함평경찰, 운수업체 방문 "안전속도 5030" 동참 호소

함평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대비, 관내 함평교통과 함평택시 등 버스 및 택시회사 10 여개 업체를 방문하고 도심부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50·30km로 낮추는 정책 홍보와 함평 버스터미널 앞에서 일반운전자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유인물 배부 활동을 함께 펼쳤다.

모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국민 대상 사전 홍보가 절실하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하려는 의지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제도가 올바르게 조기정착 가능한 것으로, 홍보의 주 내용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3.3명으로 노르웨이 0.3명 대비 매우 높고, 차량 속도별 보행자 충돌 가능성 또한 충돌 속도 60km/h기준 92.6%로 속도 30km/h시 15.4% 대비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 '안전속도 5030'은 꼭 필요한 제도이며, 도시부 제한속도 60km를 50km로 내리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이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 효과를 보여,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속도 5030을 중점 홍보하고 동참을 호소하였다.

함평=김광춘기자

## 광주 주택 붕괴 사고로 숨진 2명 사인은 질식사

### "무너진 건축자재가 목과 배 사이를 압박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



4일 오후 4시20분경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 개축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에 작업자 4명이 매몰, 굴삭기를 동원한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의 한 노후주택 보수 공사장 붕괴 사고로 숨진 2명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동구 계림동 주택 보수 공사 중 주택 구조물에 깔려 숨진 건축자재 납품업자 A(36)씨와 일용직 노동자 B(62)씨를 부검한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부검의는 '흉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무너진 건축자재가 이들의 목과 배 사이를 압박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보고서는 최소 보름에서 한 달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2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인다.

감식에서 '정확한 붕괴 추정 지점'과 '안전 규칙 위반 정황'을 살필 방침이다.

지난 4일 오후 4시 19분 계림동 주택 보강 공사장에서 시공업체 관계자·건축자재 납품업자·일용직 2명 등 4명이 무너진 주택 자재에 깔려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